

김제시, 올해 도 문화재 3건 지정 쾌거

조필달 신도비·원각사 대웅전불상·수류성당지... 문체부 종교치유순례 공모사업까지 선정

김제시는 지난 23일 전라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조필달 신도비와 원각사 대웅전불상의 전라북도유형문화재지정이 최종가결됨에 따라 앞서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수류성당지와 더불어 금년도에만 3건의 문화재를 추가확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류성당지의 문화재 지정은 하나의 면 단위(금산면)에 4개의 종교성지가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는 전례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을 세운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심신을 달래기위한 사업으로서, 문체부에서 야심차게 처음으로 추진하는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전국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어, 지난 26일 신청 금액 1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 금년 하반기에는 김제관아중 지방수령의 살림집인 '내야'를 국가보물로 지정받고자 추진중에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제시에는 이번 3건의 문화재 지정으로 11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을 뿐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대부분 따내어, 명실공히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게 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의 성과를 계기로



김제시는 지난 23일 전라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조필달 신도비와 원각사 대웅전불상의 전라북도유형문화재지정이 최종가결됨에 따라 앞서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수류성당지와 더불어 금년도에만 3건의 문화재를 추가확보 했다.

이들 활용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대부분 따내어, 명실공히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게 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의 성과를 계기로

경제와 문화가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 5월 17~21일까지 접수... 총 15팀 내외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소비자 중심형 전북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2021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집 공모는 4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로,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웹하드(only.webhard.co.kr)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영상 제작이 가능한 내·외국인이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작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팀이다. 지원규모는 총 15팀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외국인 콘텐츠 제작 가능자를 우대한다.

주요활동은 전라북도를 방문해 문화관광 영상 콘텐츠 3편을 제작하고 발대식과 위

크숍, 간담회 등 크리에이터 연간 활동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크리에이터에게는 개인(팀)별 영상 콘텐츠 1편당 활동비 50만원(총 3편 제작 시 150만원), 전북투어패스카드(도내 관광지 사용, 전북대표브랜드공인 무료관람 등), 위촉장 수여와 영상 관련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한편, 크리에이터 영상 콘텐츠 중 우수작을 5편 선정해 연말에 시상(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70만원, 우수상 2편 50만원, 특별상 30만원)과 외국어 번역, 그리고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화관광팀(063-230-746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문화가 있는 날 '무주곤충박물관에서 유쾌한 만남'

무주군이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에서 매일 마지막 수요일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 전국의 2,000여 개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2007년에 개관한 무주곤충박물관은 국내·외의 다양한 곤충표본 외에도 생태온실, 수족관 등을 갖추고 있어 연간 10만 명 이상이 찾아온다.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인 반디랜드에 위치한 무주곤충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주 수요일)을 맞아 입장료 할인행사 외에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무주곤충박물관이 보유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방역로 작성,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올해의 프로그램 주제는 '무주곤충박물관에서 유쾌한 만남'이다. 매일 마지막 수요일에 총 10회의 만남들이 실물을 기반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달 마지막 수요일인 28일 '수달과의 만남'을 진행한다. 수달을 담당하는 사육사가 실제 수달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와 체험물을 통해 수달의 신체적 특징, 먹이 등을 알려주는 교육을 진행하며 수달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사업소 권태영 소장은 "아직은 활발한 야외활동을 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켜 곤충박물관이 지니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 배우 안재홍 선정

초여름 자연 속에서 낭만을 선물하는 '무주산골영화제' (2021. 6.3.~6.6. / 6.11.~6.13.)가 매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 특집 프로그램 '넥스트 액터 NEXT ACTOR'의 세 번째 주인공 공으로 배우 안재홍을 선정했다.

'넥스트 액터 NEXT ACTOR'는 무주산골영화제와 '백은하 배우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배우 특집 프로그램으로, 매년 개성과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내 배우 한 명을 선정하여 그의 연기 세계를 입체적으로 집중 조명한다. 2019년 신설된 후 배우 박정민과 배우 고아성이 차례로 '넥스트 액터 NEXT ACTOR'로 선정되어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2021년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세 번째 '넥스트 액터 NEXT ACTOR'로 선정된 배우 안재홍은 2014년 <족장왕>을 통해 제5회 대종상과 제35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것을 비롯, 제2회 들꽃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계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신인배우의 등장을 알렸다. 이후 <임금님의 사건수첩>(2016), <소공녀>(2017), <조작된 도시>(2017), <해치지 않아>(2019), <사랑의 시간>(2020)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며 대체불가능한 매력과 개성 강한 연기



력을 선보여 왔으며, 특히 tvN <응답하라 1988>과 JTBC <멜로가 체질>에서는 다양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뛰어난 코믹 연기를 통

해 관객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 시대 청춘스타의 면모를 입증했다. 또한 최근에는 <검은 돼지>(2015)에 이어 단편 영화 <울렁 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2020)를 직접 연출하여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받는 등 자신의 영역을 점점 확장해나가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와 백은하 배우연구소는 "안재홍 배우는 앞으로도 자신만의 개성을 유지하며, 오래도록 관객의 가슴을 '울렁이게' 할 뛰어난 배우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오랫동안 듣게 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 NEXT ACTOR'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배우가 직접 선정한 대표작들을 영화제 기간 중 상영하며, 이와 함께 GV 및 스페셜 아티스트 토크가 마련될 예정이다. 여기에 백은하 소장이 배우 안재홍을 주제로 펼친 배우론, 작품별 연기론 그리고 안재홍과 나눈 솔직 담백한 인터뷰 등을 담은 특별 책자를 영화제 기간 내 정식 출간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 안재홍이 무주 덕유산을 배경으로 제작한 셀프 트레이일러가 공개될 예정이며, 그의 연기에 대한 소신과 매력 포인트를 살살이 공개하는 전시 프로그램도 영화제 기간 중 선보일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안숙선 명창의 여정 '명예 소리꾼' 판소리 강좌 개강

남원시가 지역 기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 가도록 하기 위해 소리와 이야기로 판소리의 역사를 배우는 과정인 안숙선 명창의 여정 '명예 소리꾼' 판소리 강좌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판소리의 고장 남원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좌는 4월에 시작해 12월까지 판소리에 대한 기초 지식과 판소리 주요 대목, 단가, 남도민요 등을 주 1회 야간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숙선 명창과 함께하는 대담 프로그램

등을 배치하여 명창과 소통하고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명예소리꾼은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숙선 명창의 여정은 전시관과 국악체험관 2개동으로 구성, 국악체험관은 판소리의 정체성을 한껏 드러내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춘향가중 '쑤대머리'의 애절한 사랑노래를 3편 대형스크린디지탈 아트콘텐츠로 만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8회 전국 품바 명인전

2021년 5월 7일(금) 오후 6시 30분~
전주 풍남문 광장

- ▶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 ▶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 ▶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위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